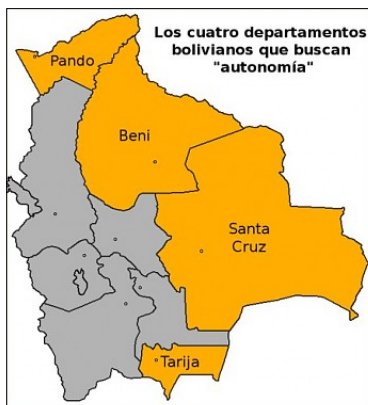




■ 볼리비아, 천연가스 세금 문제로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갈등



볼리비아 미디어 루나(Media luna) 4개 주(주황색)

볼리비아 천연 가스 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부 저지대의 미디어 루나 지역의 산타크루스, 베니, 판도, 타리하 주(州)와 추키사카 주는 과세를 통해 국민 연금 시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해 일일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은 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모랄레스 정부의 조세 정책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미디어 루나 지역 보수파들과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실시한 국민 소환 투표에서 67%의 지지로 재신임을 얻은 지 9일 만에 기존의 갈등은 더욱 해소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이자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는 2005년 당선 이후 다수 원주민의 이익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자치권을 주장하는 미디어 루나 지역의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CNN world, 2008. 8. 19.)

■ 멕시코 대법원, 낙태 합법화 무효 청원 기각

멕시코 대법원은 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톨릭교회가 제출한 멕시코시티 내 낙태 합법화 법안 무효화 청원을 기각했다. 나흘간의 논의 끝에 대법원은 11명 중 8명의 표결로 2007년부터 효력을 인정받은 낙태 합법화가 유효함을 분명히 밝혔다.



2007년 4월 24일 낙태법을 지지하는 멕시코시티 여성들의 시위

기예르모 오르티스 마야고이티아 대법원장은 이로써 낙태 합법화와 관련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고 말했다. 법안을 무효화하고 자발적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징역에 처해야한다는 마리아노아수엘라 같은 판사도 있었다.

그러나 11명의 판사들 중 8명은 멕시코 헌법 및 멕시코가 승인한 국제법규 상 어디에도 잉태의 순간부터 아이가 생존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원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후안 실바 메사 판사는 낙태를 행하는 여성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성교육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원활한 피임 도구 사용을 보장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신 12주 이하의 태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보건법 제정을 통해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 보건적 환경에서 무료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법안 시행 후 지난 16개월간 18세 및 29세 사이의 빈곤층 및 중산층 여성 12,262명이 혜택을 받아 왔다.(Telesur, 2008. 8. 28.)

■ 브라질, 아마존 보호 위한 펀드 조성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지역 보호와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선진국들의 기부금을 수집할 아마존 펀드 계획안에 서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펀드는 2021년까지 210억 달러의 자금을 동원해 산림파괴 축소, 천연자원 보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향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펀드는 다른 산업국가의 기부금을 동원해 운영되지만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지구에서 가장 큰 열대림 지역을 보호하는 데 책임지고 앞장서야 함을 강조했다. 카를로스 밍크 환경부 장관은 브라질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 펀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브라질 지부장 세르지우 레이탕은 브라질이 지구온난화와 열대림보호 문제의 상관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오랫동안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열대림보호 문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존 지역의 벌목과 목재 연소로 해마다 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El Universo, 2008. 8. 1.)

■ 아르헨티나, 동성커플에 미망인연금 지급 결정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동성커플도 미망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성애자 및 성별정정자들은 이러한 결정이 성소수자 인권에 있어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고 환영했다. 금융 거래서, 부동산 취득서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5년 이상 동거한 커플들이 수혜의 대상이 된다. 이는 지역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성소수자를 위한 여러 법안들과 달리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성소수자 관련 법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Comunidad Homosexual Argentina: CHA) 회장 세사르 실리우티는 지난 11년 동안 이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해왔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데 대해 기쁨을 표했다.

또한 실리우티는 미망인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매우 긴밀히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법안은 실제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추진되었으며, 이는 동성애자



2007년 9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세계 게이 월드컵에 참가한 선수들

인권에 대한 정치적인 호의의 표시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 측은 동성커플이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마찰과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BBC mundo, 2008. 8. 27.)

■ 쿠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 개시



쿠바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영화를 무료로 배포, 상영한다. 영상을 소리로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만든 8편의 영화는 올해 여름 내로 개봉할 예정이다.

시험 상영에 참여한 아동 시각장애인들은 호의적이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영화감독 호세 루이스 로바토는 “시각장애인들도 집을 나서 극장에 가 사회 속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영화가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국시각장애인협회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도 이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에게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환영했다.

영상을 소리로 설명해주는 영화는 미국, 스페인 및 이탈리아에서 이미 제작된 바 있다. 하지만 쿠바는 이들 나라들과 달리 텔레비전 및 극장용 영화를 동시에 제작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영화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Telesur, 2008. 7. 8.)

■ 남미공동시장 국가들, 여권 제한 철폐 및 유럽연합의 반이민 정책 비판

아르헨티나 산 미겔 데 투쿠만에서 열린 제 35회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 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강제 송환 등의 내용을 기조로 한 유럽연합(EU)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다.



지난 6월 30에서 7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 산 미겔 데 투쿠만에서 개최된 제35차 메르코수르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의 결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 국민은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른 회원국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국 정상들은 모든 이민자 가족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6월 18일에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이민자를 18개월까지 투옥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유럽 의회의 강제 송환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유럽 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페루 리마에서 개최됐던 제5회 유럽연합 및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정상회담(ALC-UE)에서 진행된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상들 간의 논의를 무시하는 결과임을 지적하며 2010년부터 시행될 강제 송환령의 발효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La Nación, 2008. 7. 1.)